

# 21. 부패한 관리들이 두려워한 퇴계(42세)

퇴계는 42세 때에 정치를 다루는 의정부의 검상(정5품)이 되었다.



특정한 지역의 재해나 사건을 조사하는 재상어사로 임명되어 충청도 지역으로 나가는데...

호흡을 크게 들이 마신 후



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다가

흡!



숨을 토하면서 동시에 큰 소리로...

어사 출두야!







아니 관청의 물건을 지  
마음대로 내다 쓰단 말인가?  
이런 악질 사또가 있다.

그런데 사또가 무슨  
뺨을 믿고 그런 짓을  
한단니까?

조정에 한창 잘  
나가는 모 대감이  
친척이래요.



아무리 고관의 친척이라도  
백성의 고향을 빨아먹으면  
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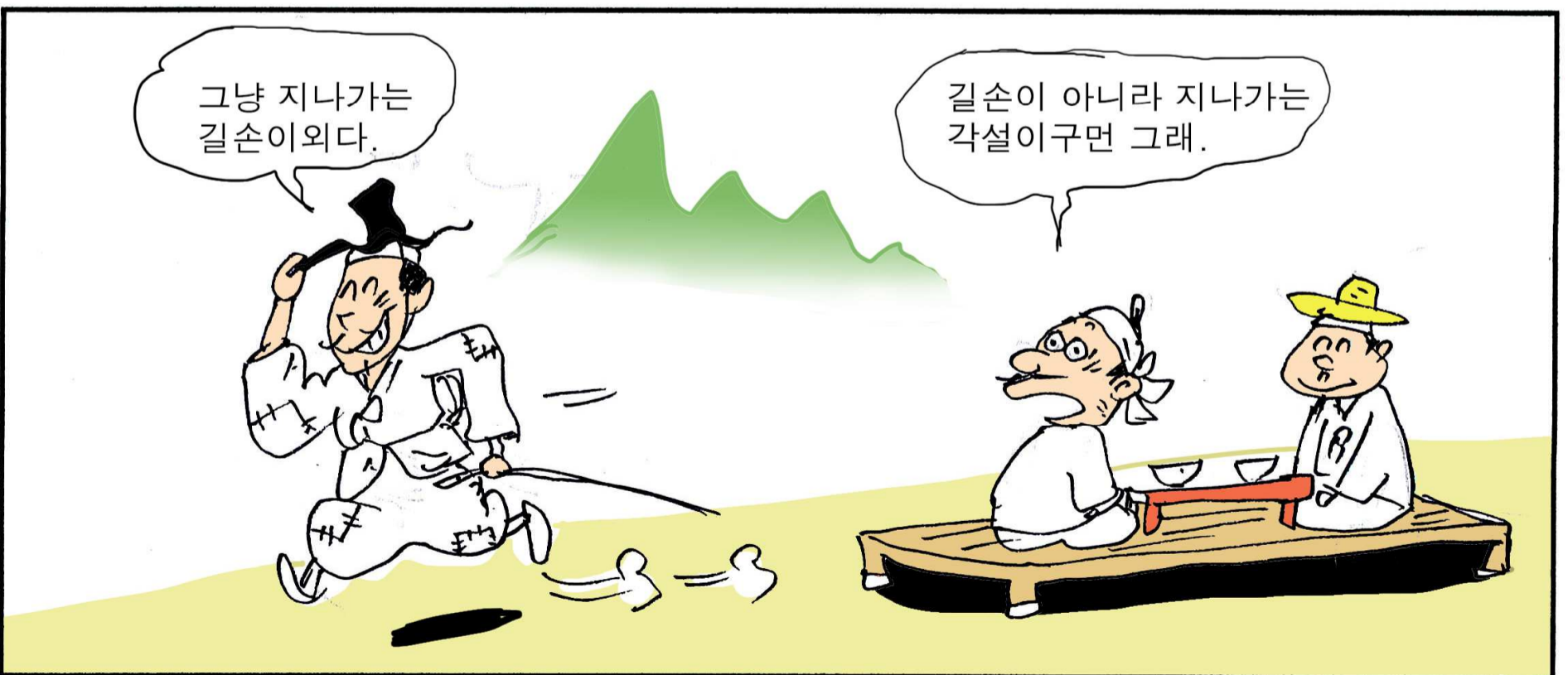
당연히 안되죠.  
하늘이 노할  
겁니다.

그런데 댁은  
누구슈?



그냥 지나가는  
길손이외다.

길손이 아니라 지나가는  
각설이구먼 그래.



한군데 말만 들으면 안된다.  
꼼짝 못하게 보다 폭 넓은 증거자료를  
수집해야 해.



요즘 세상에도 고관대작의 친척을  
내세워 백성의 고향을 빨아먹는  
흉악한 놈이 있다니!!



아이고  
아이고!

왜  
울어요?



문지 말아요. 난 이제  
죽는 수 밖에 없대구요.  
으앙~~

무슨 일로?



사또가 목숨보다 소중한  
농사 짓는 소를 강탈해  
가서 잡아 먹었던  
말입니다! 엉~엉~

가족의 생계를  
책임져 온 소가  
없어졌으니  
이제 난 죽는  
길 밖에는  
없어유.

눈 뜨고 차마 볼 수  
없구나! 도저히 이  
인간을 그냥 둘 수가  
없다!





